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4년 9월 16일

Cuomo 주지사, C형 간염 검사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법안 서명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환자별 처방지시에 대한 요구 없이 의사나 간호사가 등록 간호사의 검사를 허용하고 필요에 따라 환자에 대한 검사를 관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C형 간염(HCV) 검사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Cuomo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 중 병원, 진료소 및 의사 사무실이 내진 또는 기본 진료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1945년부터 1965년 사이에 출생한 모든 사람들에게 HCV 검사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을 확장한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 새 법안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검사에 대한 기회를 위축시키는 불필요한 장벽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더 빨리 C형 간염 진단을 받을수록 더 빨리 치료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누구나 최대한 빨리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등록 간호사는 C형 간염 검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검사를 받는 특정 환자에 대해서는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시가 있어야만 검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비환자별 지시에 따른 검사를 관리하는 이 새 프로세스는 현재 특정 예방접종, 예방접종 관련 아나필락시스에 대한 치료, 결핵 검사 및 HIV 검사를 관리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이 새 법안(A9124-A, S6871)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든 뉴욕 시민들을 식별하여 HCV 검사를 받지 못하게 하는 높은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존 절차를 토대로 구축된 것입니다.

이 법안의 후원자인 상원 의원 Kemp Hannon은 "이 법안은 1945년에서 1965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C형 간염 검사를 받게 하는 작년에 제정된 법을 개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통과하는 이 법안은 가장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이 검사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C형 간염 검사에 대한 비환자별 처방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기존 장벽을 없애고 더 많은 의료 전문의가 이 검사를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법안을 통과시킨 주지사의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Korean

이 법안의 후원자인 하원 의원 Kenneth Zebrowski는 " 뉴욕은 침묵의 전염병과의 전쟁에서 국가를 이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0명의 베이비붐 세대 중 한 명은 잠재적으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새 치료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질병이 확산되기 전에 검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C형 간염 검사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뉴욕 시민들이 최대한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협력을 아끼지 않은 Cuomo 주지사께 감사를 표하며 오늘이 법안에 서명하는 것은 질병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싸움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뉴욕주에 걸쳐 여러 검사 장소를 포함한 C형 간염 검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
WE WORK FOR THE PEOPLE
PERFORMANCE * INTEGRITY * PRIDE